

# 강산이네팀

팀장 : 이강산

팀원 : 김은수 이송현

## 결과보고서

주 소비층이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 고령인구 소비패턴분석을 하면 적절한 실버산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너무 넓고 복잡한 이슈들을 다뤄야 했고, 단정지를 만큼 가설을 뒷받침해줄 결과들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우선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상을 분석해내고, 또 고령인구가 어떠한 분야에서 꾸준히 소비를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고령인구는 주로 관광과 문화서비스 분야에서 소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내고 그 지역부터 실버산업을 실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소비패턴 분석 결과, 연령에 관계없이 꾸준한 소비는 교통비와 식품, 주류, 담배류, 그리고 문화생활 등이 있었습니다. 고령인구의 소비도 이와 크게는 다르지 않았고, 고령인구의 소비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여행이 1위로, 2위로는 문화서비스가, 3위는 운동 및 오락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 고령인구의 소비만족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더욱 고령인구의 소비를 만족시켜줄만한 업종을 확장시켜야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Lesson Learned

### 이강산

처음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것이 많습니다. 물론 맛보기에 불과하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주제선정부터 데이터를 다루는 것까지 직접 다 경험해볼 수 있었기에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고 느껴져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주제선정과 가설을 정할 때, 그것이 구체적일수록 과정이 더욱 매끄러울 수 있고 데이터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제의 폭이 조금 넓고 너무 결론도 너무 러프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해 나가기위해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욱 실력을 닦아서 더욱 효과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듬는 기술을 길러야겠고, 어떤 예리한 질문을 던질 것인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김은수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은 점은 평소에 접하던 정제된 데이터가 쉽게 얻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수집 과정은 공개된 데이터셋 자체도 적은 것 뿐만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셋 중에서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셋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 과정 또한 생각하는 데이터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에도 상당한 디버깅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을 때의 기쁨이 데이터 전처리과정의 매력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적절한 process의 분배가 project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부분을 각자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했지만 각자 시각화나 전처리나 수집 등의 프로세스를 나누어 진행하였을 때 조금 더 효율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프로젝트라서 분석과제를 선정하는 점이나 매끄러운 전처리나 고급스러운 시각화 등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느꼈지만 이런 어려운 점을 겪었기에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승현

항상 준비되어진 데이터로 실습을 할때는 몰랐었는데,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와서 첫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데이터를 찾고,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조원들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조원들과 소통하고, 한달반동안 배웠던 파이썬을 직접 데이터찾기부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보람있었습니다.